

불교대학을 찾아서

⑤ 동산불교대학

광정현 전 국회의원, 안동일 변호사, 드라마 '응의 눈물'의 작가 이환경 씨, 가수 김홍국 씨 등이 모두 '동문'인 대학. 신입생의 70% 정도가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남자 비율이 여자의 2배 가까이 되는 대학.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 스님)은 졸업생들의 면면만 보아도 그 '유명세'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배출했다.

학기마다 300여명이 넘는 발길이 동산 불교대학으로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특징으로는 수준 높은 강사진과 특색 있는 교과목을 들 수 있다. 무진장 스님과 묘주 스님, 종석 스님을 비롯해 김상현, 권기종 교수 등 불교학 관련 교수들이 포진한 교수진도 정규대학에 버금간다.

불교미술학과, 우리춤학과, 불교한문학과 등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는 특색 있는 교과목도 인기의 한 요인이다. 동산불교대학의 학생이기도 한 서울대 이애주 교수가 지도하는 우리춤학과는 지난해 개설 때 '소리선출 발표회'를 가지기도 했다. 중국문화에 이해하고 원전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 올해 처음 개설한 한문학과는 50명 모집 예정에 120명이 몰리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앞으로 차분화와 침술 등에 관련된 학과도 개설할 예정이다.

동산불교대학의 초석은 재가불자단체인 동산반야회가 82년부터 시작한 3개월 과정

의 불교교양강좌다. 이 강좌를 신청하는 회원들이 늘고 그 기대치도 높아짐에 따라 1992년 2년 과정의 불교대학을 열었다.

"기도만 하는 풍토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바로 읽어야 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춰 2년 동안 체계적인 경전 공부에 이뤄지고 있다. 1학년 교과목은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한국불교사, 유식·정토사상 등 9과목을, 2학년 과정에서는 법화·반야·화엄사상과 불교사회복지론, 불교미술, 포교방법론 등의 9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2년

불교미술·우리춤학과 등 교과목 차별화

동산반야회 3개월과정 강좌가 모태

LA관음사에 분교...교민위한 통신교육

과정의 불교대학을 마치고 경전에 대해 더 깊은 공부를 원하는 사람은 동산불교 전문연구원에서 정토학, 근본불교, 대승경전, 인도 티베트어 등의 강좌를 들을 수 있다.

대학 과정의 졸업과제들은 나무아미타불을 10만 8천 번 사불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과목을 충실히 배우는 것만큼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 또한



◇지난해 개설된 '우리춤학과' 수강생 20여명이 일년간 갈고 닦은 춤솜씨를 선보이는 '우리선출 발표회'를 2월6일 가졌다.

중요하다. 르완다 난민 돕기와 몽고 난민 돕기 등 대사회 활동을 펼치는 것도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대학의 학풍이다.

11년 동안 2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재가불자들의 교학도량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동산불교대학은 97년에 LA관음사 분교를 설치해 교민들을

동산불교대 4기 졸업생 종교편향 바로잡는 역할

임희용 통일·종교편향특위장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의 통일, 종교편향 특별위원회 임희용(사진) 위원장은 동산불교대학 4기 졸업생이자 동산불교연구원 1기 졸업생으로, 포교일선에서 불교를 바르게 알리고 종교편향 사례를 찾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는 경전 공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임 위원장은 "불교교육기관의 문턱이 낮아져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시인 김흥성의

네 팔사는 이야기



<4> 카트만두와 보리수

카트만두... '나무의 사원'이라는 뜻

보리수와 더불어 사는 지순한 사람들의 땅

지만 저는 그 나무가 보리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모수(母樹)가 되어 카트만두는 물론 히말라야 전역에 자자손손 뿌리를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만든 세계 지도에는 카트만두

가 가덕만도(嘉德滿都)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팔어의 한자 음역이겠지만 굳이 그 뜻을 풀어 보면 '아름다운 목이 가득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비록 현대 물질 문명으로 대표되는 여러 석유와 탐욕으로 인해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며 급변하고 있기는 해도 카트만두가 여전히 그 이름 값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오늘날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는 보리수 덕택일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네팔 사람들은 보리수를 숭상하며 치성을 드립니다. 우리도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동구 밖 당 나무에 치성을 드렸듯이 네팔 사람들도 보리수에 신타래나 형질이나 종이를 걸고 소원을 빌니다.

돈 버러 객지에 나간 자식이나 지아비가 탈 없이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오기를 빌고, 떡두개비같은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빌고, 좋은 신랑을 만나 오순도순 살게 해 달라고 빌니다.

그리고 연인들은 보리수 밑에서 사랑의 맹세를 합니다. 보리수 밑에서 거짓말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팔 사람들은 보리수와 더불어 아직도 이렇게 지순합니다.

연중 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판자집 독거 시각장애 할아버지

하루 하루의 삶이 '행벌'

'옥수수 위에 빗방울이 나립니다. /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 낙엽이 지고 찬 바람이 부는 때까지 / 우리에게 남아 있는 날들은 / 참으로 짧습니다. (생략)'

도종환 시인의 <집시꽃 당신>. 마지막 마크로 눈감는 아내에게 읽어줬던 시다. 벌써 4년이 지났건만, 가는 길을 마냥 지켜 볼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남편은 여태껏 사무친 마음을 편히 놓아줄 수 없다. 아내의 기일이 다가올수록 그때 그 시는 지금 살아있는 남편에게 제 사장의 주문이 되어 버렸다.

아내, 정말로 사랑했다. 21살 대학 다닐 때 아버지가 운영하는 클래식 다방

버지는 자신의 몸 챙길 여유는커녕 온 재산을 아내의 병원비에 쏟아 부었다. 이렇게 아내의 투병생활에 모든 것이 집중되다 보니, 4년 전부터 최 할아버지는 보증금 150만원에 사글세 8만 원짜리 판자집 단칸방에서 버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산허리를 파고 들어가 위태롭게 자리 잡은 집. 낮은 천장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을 수 밖에 없는 그곳마저도 곧 비워야 할 판이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25만원으로 근근이 연명만 하고 있는 최 할아버지 처지에 다른 집을 구할 수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온재산 아내 건강화 치료비에 충당

산허리 단칸방 붕괴위기...이사 '막막'



◇아내의 기일이 다가올수록 멍하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최예호 할아버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에서 7살 많은 아내를 만났다. 2년 전에 끝내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아내였다. 산모한테 위험하다고 해서 3개월 된 아이마저 유산시켰다. 원래 몸이 안 좋은 아내를 위해 평생 아이도 갖지 않았다. 그러던 아내가 20년 전 건강화에 합병증까지 앓게 되자, 종로 원남동 서울대병원을 집처럼 드나들게 됐다. 병석에 누워 힘겹게 돌리는 아내의 눈물방울도 활아 주었던 남편이었다.

최예호(64) 할아버지, 이제는 아내 김세복 씨의 빈 자리에 당뇨병과 가난만이 자리 잡았다. 급기야 2년 전에는 합병증으로 왼쪽 눈과 오른쪽 발가락 하나를 잃었다. 병수발만 들었던 최 할아버

게다가 눈도 잘 보이지 않다보니 밥 해 먹는 것부터 팔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중노동에 가깝다. 피부 건조증까지 다시 심하게 도져 마음대로 씻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사물을 응시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초점이 흐려진 최 할아버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점점 잃어가는 시력만 탓할 수 없어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점자책을 마련할 길이 없어 이나마도 그만뒀어야 할 것 같다. 젊었을 때, 출판

을 했던 최 할아버지로서는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의 '행벌'이다.

아내의 기일이 다가올수록 멍하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최 할아버지. 눈으로 읽었던 <집시꽃 당신>의 시구, 최 할아버지가 웅얼거린다.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내가 떠난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메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인지, 한 평 반도 안 되는 웅색한 판자집 방안에 잔잔히 녹아든다.

주소 : 서울 은평구 역촌2동 210번지
전화번호 : (02)351-4550
후원계좌 : 국민은행 458302-01-030009(예금주 최예호)

김철우 기자

제 1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학인모집

한국불교범음회에서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초급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 법, 도량식, 쇠승, 상단에불,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경,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 범패)
· 고급과정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사십구재, 예수재, 수록재 (전문적 범음, 범패)

- 모집인원 : 00명 (수시모집)
- 매주 강의 요일 : 수, 목 (오후 5시 - 7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원광사 회장겸 강주 김도진 화상

사무실 051)554-1518, 011)849-0961
회 장 011)864-1518
총 무 017)563-3062

한국불교범음회 의식교육원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3일간의 체험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수행에도 얻기 힘든 깨침을 3일 안에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하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중국의 백림사(하북성 조현)와 보보사(강서성 정안현)에서는 이미 찰나(돈오)에 깨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만에 지혜의 눈이 열려 아라한(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관념과 이상과 꿈이 아닌 구체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체계적인 수련 방법입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하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룰 수 있는 능력
- 생사의 두려움에서 초월할 수 있는 능력
- 영가들의 장애에서 벗어나 스스로 전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 온갖 꿈의 시달림에서 예방
- 자신의 고통과 질병이 지워지는 힘

체험하는 만큼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다.

- 번민, 갈등, 괴로움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일상 힘든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기 위해 방향알 때
-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할 때
- 부족함 없이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여름수련실정

2002. 7. 5 ~ 2002. 8. 29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일주일전 예약

수련과정

本 性 (3 일)	참미음, 無心, 無分別智 업장소멸
無碍法界 (3 일)	不空, 無分別後得智 영적문제매결(진도 肅度) 마음의 자유와 유식 원하는 대로 이루는 법칙 거듭남의 비결
無 上 覺	安息, 삶의 기쁨

033) 435-3166, 435-6166
FAX 033) 435-8166

춤마음수련 心田 대광사